

# 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 실태분석\*

## The Analysis of the Investigation the Actual Conditions on the Management of Native Local Data of Cultural Center

문정희(Jeong-Hee Moon)\*\*

장우권(Woo-Kwon Chang)\*\*\*

### 초 록

시대적으로 역사적 기록물과 지역의 향토자료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향토자료의 수집과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현재 수집된 자료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향토자료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바람직한 향토자료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문화원에서 향토자료 관리는 열악한 인력과 재정적인 문제로 향토자료의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향토자료의 인식의 정도가 달라 문화원마다 향토자료 관리정도의 편차가 심하며, 문화원의 발간사업이 지역민의 생활보다는 지역 권력사에 치중되어 풍부한 지역사를 담지 못하거나 이를 교육과 문화콘텐츠 제작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BSTRACT

Although the native local data is being deemed important in the age where historical records are regarded as important, currently it is hard to find out detailed actual state of local data, because it is now being collected and managed by many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This study is aimed at surveying the current state of management of native local data possessed by local cultural center, one of institutions that produce and manage local data, and suggesting a desired alternative idea of cultural center for management of native local data, through the problems found by the research. As the result, the current state of data management of the local cultural center are as follows: First, local data management in the local cultural center as the problem in poor surroundings and a financial question get local data-related education make systematic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unavailable. Second, local data depends on the extent of its awareness of it, each and every cultural center shows a significant deviation in the extent of execution of local data-related project. Third, even though the publication business of the cultural center is being lively executed, it attaches importance to the history of local authority rather than to the residents' life, and it should not be supplemented in applying it to education and production of cultural contents.

키워드: 향토자료, 향토자료관리, 문화원, 지방문화원, 문화콘텐츠

native local data, native local data management, cultural center, local cultural center, cultural content

---

\* 이 글은 2008년도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저자가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mjh1816@hanmail.net)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hanmail.net)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08년 8월 21일 ■ 최초심사일자: 2008년 8월 26일 ■ 게재확정일자: 2008년 9월 11일  
■ 情報管理學會誌, 25(3): 297-320, 2008. [DOI:10.3743/KOSIM.2008.25.3.297]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기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교량이며 인류문화와 역사의 충실한 안내자로서 그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 지침서이다.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개인, 지방자치, 국가의 역사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빠르게 정착화 되고 있으며 지역의 향토자료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향토자료는 지역마다 독특한 시대적 산물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기록물이다. 이제는 지역과 국가가 향토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 자료의 수집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향토자료를 기록물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방 기록물 관리기관은 그 수행 업무로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을 수집한다(공공기록물관리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1조 7항). 지방문화원은 향토사의 발굴과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과 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및 보급한다(지방문화원진흥법 2008.2.29. 법률 제8852호 8조 1항, 2항, 4항)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록물관리법 제정과 시행에 따른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아직 과도기적 상태이고 기록물관리의 역사가 짧다보니 공공 기록물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향토자료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수집된 자료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

요하다. 즉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향토자료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관 중에서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바람직한 향토자료 관리를 위한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1.2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해 전라남도 22개 시·군 문화원을 대상으로 운영현황과 향토자료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여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업무 중 향토자료 관리로 제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지방문화원 운영과 향토자료 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둘째, 향토자료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원 향토자료 담당자들에게 전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지방문화원의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운영프로그램과 향토자료 서비스 여부를 조사하였다. 넷째, 담당자의 인터뷰 결과와 제공되고 있는 운영프로그램 자료, 그리고 회수된 설문지의 통계처리를 통해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분석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화원의 향토자료관리에 대한 그 방안을 모색하였다.

### 1.3 관련연구

향토자료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소수의 학자와 연구자들, 그리고 관련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시대의 출현으로 각 지방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 산업 등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지역에 대한 각종 정보자원을 체계화하여 DB로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종합목록화'가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서 향토자료를 어떻게 발굴하고 생산하며, 수집하고 관리해 이용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현재 향토자료 관리에 관한 연구는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자료에 대한 연구이다. 이택준(1970) 『향토자료의 수집보존』, 전영래(1977) 『향토자료 보존의 의의와 방안』, 장경호(1991) 『구미도서관 향토자료실을 중심으로』, 정현태(1991)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 양상숙(1997) 『고문서, 고서, 향토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대한 지역도서관의 역할 : 제주지역 향토자료의 수집을 중심으로』, 정주연(1998) 『향토자료의 효율적 관리 방안 :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둘째, 향토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봉사방법에 대한 연구와 기록물 관리 측면에서의 자료관리 연구이다. 강진갑(2000) 『21세기 정보화 시대 인터넷 향토지 편찬에 대하여』, 이남희(2000) 『향토사자료의 전산화 과정과 그 효용성』, 이진민(2003)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운영에 관한 연구』 등이다.

셋째, 지방역사 기록물 형태와 문화원 운영에 대한 연구이다. 김미향(2004) 『지방역사기록물 수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희진(2005) 『지방역사 기록물 수집정책 연구』 등이다.

넷째, 지방사자료 정리와 지방자치와 기록관

리 연구이다. 주혁(1985) 『근현대 지방사료와 향토사 연구』, 김병인(2000) 『지방사 연구에 있어서 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 염미경(2001) 『근현대 지방사자료의 정리현황과 활용방향』, 이현식(2002)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수걸(2002) 『지방자치와 지방기록관리』, 송정숙(2004) 『지방자료 관리현황과 전망』, 강순애(2006) 『한국의 지방사 디지털아카이브의 구축과 통합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자료 관리 측면에서 기술되어 있다. 도서관 이외의 기관 특히 지방문화원에서의 향토자료는 어떤 종류가 소장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향토자료가 얼마만큼 있다는 통계적 수치의 정리현황이 대부분으로 향토자료의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지역문화자원의 중추기관인 지방문화원이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향토자료를 어떻게 수집,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또한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책으로서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향토자료의 개념과 조직

#### 2.1.1 향토자료의 개념과 범위

일반적으로 향토(郷土)는 시골이나 고장을 말하며, 지역사회가 출생지·현주소 등의 계기에 의하여 개인이나 인간집단과 특수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형성되는 사회개념이다(두산백과사전, <<http://www.naver.com>>). 학술적으로는 공통된 생활양식과 협조단결의 통일의식 및 역사적 유물을 공유하고 있는 일정한 지리적범위의 생활권을 말한다.

향토자료는 이러한 향토에 관한 자연환경, 역사, 전설, 인물, 민속, 주민산업, 문화, 경영 등에 관하여 조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간행물, 유물, 유적, 표본, 견본, 모형, 사진, 레코드, 필름, 테이프 등을 말한다(하용태 1964, 18). 향토자료는 유사한 개념으로 지방자료 혹은 지역자료 등으로 정확한 개념의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 향토자료는 '그 지역사회의 역사적 내력은 물론 현재의 정보 및 미래의 예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자료'이다(정현태 1991, 12). 또한 자료대신 사료라는 용어가 대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료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는 향토사, 지역사, 지방사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료는 어떤 수집기관에서 왜 수집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용어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원 등에서 향토자료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이 글에서는 향토자료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향토자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도출되고 있으나 지리적인 측면에서 문화원이나 혹은 향토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향토 출신의 인물이 타 지방에 큰 영향을 주었거나 깊은 관계를 맺게 한 경우 에는 그 인물과 관련한 지방을 일단 고려해야 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로서 타지방의 한 인물이 향토 내에서 어떤 업적을 쌓고 향토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준 경우는 그 인물에 관련한 타 지방의 사항을 마찬가지로 향토자료의 범위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실제적인 향토연구의 질적인 변화와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2.1.2 향토자료의 가치와 종류

향토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사 연구는 단순히 특정 지방사의 독자성과 지역문화의 우수성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여타 지역과 구별되는 차별적인 특성과 여타 지역과 공통되는 보편성에 대한 추적을 통해 우리 역사의 변화와 발전 양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적해낼 수 있다(유재춘 2002).

외국의 지방사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1876년 미국 100주년 기념의 해부터 지방의 기록물들과 전문적인 지방 역사 관련 저술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고, 1960년대에 많은 도서관들이 지방과 가족의 역사에 관한 기록물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주제들은 대학의 교과과정에 추가되었다. 또한 1960년대에 미국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지방 역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가 역사의 개념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에 따라 지방 역사 기록물이 수집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의 지방사 연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김미향 2004, 11).

따라서 지방문화시대가 열리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향토사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토자료를 구비해야한다. 지역적 가치가 풍부한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일은 바로 지역의 문화자산을 지키고 가꾸는 일과 직결된다. 문화산업은 자기 지역의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향토자료의 종류는 다양한 관점에서 나누어진다. 첫째, 형식과 형태이다. 여기에는 인쇄기록, 서사된 기록, 그림으로 된 기록, 조각된 기록 등이 있다. 둘째, 내용이다. 이것은 순수한 향토자료와 향토인의 전기에 관한 자료, 자작별로는 향토인에 의한 편저자료, 향토관광서의 간행물, 향토소재 기관의 간행물, 종교기관 간행물 등으로 나누어진다(장대원 1976, 61). 셋째, 향토자료의 개념적 정리이다. 지방행정자료, 지역소재 자료, 박물관적 자료, 지역소재자료, 고문헌 자료 등의 5부류로 나누어진다(정현태 1991, 20 - 22). 넷째, 향토자료는 다양하게 수집될 수 있고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향토자료봉사라는 개념 속에 지역사회 정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향토자료를 내용에 따른 구분, 생산주체에 따른 구분, 시기에 따른 구분, 형태에 따른 구분으로 나누고 있다(정주연 1998, 17).

다섯째, 내용과 성격에 따른 분류이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자료관의 서가(수장고) 정리와 자료 열람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문서를 대할 때와는 달리 근현대사 연구자들이 이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2003, 36-45)는 분류체계를 수집가능성과 자료밀집도, 연구 활용성, 자료정리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장처별 분류, 분야별 분류, 형태별 분류 등으로 나누었다.

### 2.1.3 향토자료의 수집과 정리

향토자료의 조직은 수집과 정리로 이루어진다. 자료의 수집은 자료를 정보원으로부터 이관, 기증, 구입, 대여 등의 과정을 통해 자료를 받아

들이는 과정이다. 향토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기관의 설립목적이나 규모 등 기관의 상황에 맞는 수집정책이 필요하다. 수집정책은 자료수집 기관이 무엇을 수집할지, 수집을 착수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무엇인지 특별한 관심이 있는 자료의 유형이 무엇인지 등을 규명한다. 또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미리 계획되어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집정책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기관의 법적 규정의 틀 내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장윤희, 2004, 3).

향토자료는 기본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수집에 착수할 때 대체로 구입, 기증, 기탁, 자체제작 등 4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 내 역사학회 및 각종 사회단체, 공공도서관과 정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료수집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실용적인 자문과 유용한 향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향토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주제별 정리, 분류표에 의한 정리, 재구성에 의한 정리가 있다.

주제별 정리는 기록물을 정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입각해서 제한적으로 선정된 몇 가지의 주제로 분류, 정리하는 것으로 주제단위들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주제별 카테고리 부분은 시대별 카테고리별로 다시 분류하고 유래지 별로 세부 구분한다.

분류표에 의한 정리는 대부분 도서관에서 일반자료와 구분되게 별치기호를 준 다음 KDC(한국십진분류법)로 주제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한 도서관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분류가 사용되어 나타나는 문제와 기존 자료들과의 분류에서 초래되는 혼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다

른 분류표에 의한 정리방식으로 '090 향토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구분하여 적용한다. 하지만 소수점 이하 분류가 너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재구성에 의한 정리는 향토자료 정리자가 정리대상으로 결정된 문서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생산기관의 역사를 이해하여 향토자료를 재구성한다. 먼저 소장처 발간기관 등 유래지에 따라 세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자료를 등록구분하고, 생산기관의 기능과 성격,

역사를 반영하는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데 이때 생산기관의 권한, 조직, 구조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진민, 2003, 65-66).

#### 2.1.4 민족문화와 향토문화조직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민족문화와 향토문화조직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기 위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국책사업으로 편찬하였다 (표 1 참조). 이것은 18세기 후반 이후 중단되었

<표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비교

구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민족문화</li> <li>① 민족</li> <li>② 강역</li> <li>③ 역사</li> <li>④ 자연</li> <li>⑤ 생활</li> <li>⑥ 사회</li> <li>⑦ 사고</li> <li>⑧ 언어</li> <li>⑨ 예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별 향토문화</li> <li>① 삶의 터전(자연과 지리)</li> <li>② 삶의 내력(지방의 역사)</li> <li>③ 삶의 자취(문화유산)</li> <li>④ 삶의 주체(성씨와 인물)</li> <li>⑤ 삶의 틀1(정치와 행정)</li> <li>⑥ 삶의 틀2(경제와 산업)</li> <li>⑦ 삶의 내용(종교와 문화)</li> <li>⑧ 삶의 방식(생활과 민속)</li> <li>⑨ 삶의 이야기(구비전승과 어문학)</li> </ul>
서술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중심</li> </ul>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28권(각 권900여 쪽)</li> <li>• 65,000항목, 420,000매 (200자 원고)</li> <li>• 사진자료 35,000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2 시·군·구 포털 사이트</li> <li>• 58만 항목, 232만매</li> <li>• 사진 185,600종</li> <li>• 동영상 11,600종</li> <li>• 음향 23,200종</li> </ul>
편찬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책</li> <li>• CD-RO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편찬시스템</li> <li>• 웹사이트</li> </ul>
편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 12년(1980~1991)</li> <li>• CD-ROM : 3년(1999~200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2004~2013)</li> </ul>
편찬 추진근거 및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 제 9628호로 추진</li> <l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 및 지자체 분담금</li> <li>• 가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향토문화연구센터</li> </ul>
서비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비용 아날로그 방식의 책과 CD-RO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의 디지털 방식</li> </ul>
이용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적</li> <li>• 이용자층 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li> <li>• 모든 인터넷 대상자</li> </ul>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최초 단일민족의 자국문화를 집대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 발전의 지식기반 마련</li> <li>• 21세기 지식산업의 기초 마련</li> </ul>
소요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5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60억</li> </ul>

던 대규모 민족문화 집대성 사업으로서 중앙 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급속히 소멸되어 가는 향토자료의 보존, 계승을 위해 지방적 시각에서 이루어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문화 정리 사업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http://www.aks.ac.kr>> [2008/08/06])

또한 그동안 근현대사 자료에 관해서는 전문 연구자들에 의한 몇몇 특정분야만이 정리·활용된 실정이다.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자료 수집의 계획과 구도가 전혀 없었다. 즉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중요성이나 우선순위가 선별된 적이 없이 연구자나 연구주체에 의해 단편적으로 자료의 수집·정리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료의 체계화와 시도, 조사정리방법에 대한 제시는 거의 전무했다. 이는 전근대의 고문서자료 정리나 향촌사회사 자료 수집노력에 비하면 참으로 미진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근·현대사자료수집 및 편찬사업이 실시되고 있다(표 1 참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http://www.grandculture.net>> [2008/08/06])

## 2.2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

지방 문화원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향토)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향토)문화센터이다. 동시에 사회 교육기관의 성격도 가진다.

1950 - 70년대에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사업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업적을 일반인에게 주지시키거나, 향토문화를

개발, 보급, 선전하거나 외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1980년대의 지역문화정책은 지역의 문화자생력을 높이는 문화민주주의 차원으로 발전되지는 못했지만 지역문화의 가치를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 민주화와 문화적 형평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기였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변화는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고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업무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복지증진과 문화예술의 산업적 경제적 가치 확대 및 우리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중요한 정책가치로 추구하였다.

1994년 제정되어 2007년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8745호 일부개정) 제8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 7)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제 지방문화원은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문화 활동의 핵심주체이자 구심점으로 그 위상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또한 1995년에 지방 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문화예술을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가치와 환경의 변화는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3.1 연구문제와 표본설정

이 연구에서는 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여 바람직한 향토자료 관리를 위한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 소재 시·군 문화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

시하였다.

1) 연구문제 1 : 문화원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향토자료 관리를 위한 제반 운영여건은 어떠한가? (조직 및 인력관리, 재정지원 여부 등)

2) 연구문제 2 : 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 업무 진행 중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대응하는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 연구의 표본 설정과 구성은 다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1) 문화원이다. 이 기관은 전라남도 시·군 소재 문화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지역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22개 문화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 2>는 전라남도 시·군 문화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전라남도 시·군 문화원 현황

연 번	문화원명	소재지
1	강진	강진읍 남성리 94
2	고흥	고흥읍 호형리 991 (고흥종합문화회관내)
3	곡성	곡성읍 읍내리 776-4
4	광양	광양시·읍 칠성리70
5	구례	구례읍 봉남리 334-1
6	나주	나주시 송월동 1102
7	담양	담양읍 천변리 401-1
8	목포	목포시 대의동2가 1-5
9	무안	무안읍 교촌리 127-4 (승달문화예술회관 내)
10	보성	보성읍 보성리 902-13
11	순천	순천시 저전동 229-2
12	신안	목포시 만호동 3-4
13	여수	여수시 공화동 1052
14	영광	영광읍 무령리 315-82
15	영암	영암읍 교동리 371-1
16	완도	완도읍 서성리 791
17	장성	장성읍 영천리 973-9
18	장흥	장흥읍 남동리 산 60 (장흥문화예술회관 내)
19	진도	진도읍 교동리 545-2
20	함평	함평읍 함평리 154-1
21	해남	해남읍 성내리 4
22	화순	화순읍 훈리 29-1



2) 운영현황이다. 문화원에서 조직 및 인력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재정지원과 관리여부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의내용과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3) 향토자료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인지도이다. 여기에서는 향토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존되고 있는지, 자료의 유무와 발간실적, 향토자료서비스 여부, 향토자료의 이용과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등에 대한 현황과 인지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 3.2 설문지 구성과 수집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문항은 다음의 연구조사에서 도출되었다. 하나는 「2000년도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0)이다. 여기에서는 지방문화원 조직의 효과성 수준을 비교·평가하고 앞으로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지표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목표설정 및 비전, 조직 및 인력, 재정, 시설, 자료, 사업, 교류협력, 홍보, 마케팅협력관계의 평가자료를 등을 조사대상 항목으로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운영에 관한 연구』(이진민 2003)에서는 공공도서관 향토/지역자료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제시한 향토/지역자료실 운영, 자료의 수집과 정리, 봉사, 지역기관과의 협력, 이용자 실태, 운영계획 등을 참조하였다. 이것은 지방문화원에서의 향토자료 관리에 대한 설문 문항의 기초가 되었다.

설문지 구성내용은 크게 8개의 평가영역에 전체 4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조직 및 인력관리(7): 인력구성(1), 인력

의 전문성(3), 사무분장(1), 향토자료 관련 교육의 기회(2).

2) 재정(4): 전체 예산 중 향토자료 관련 예산 비중(1), 외부의 재정지원 유무(1), 향토자료 관리를 위한 재원 혹은 그 외 것들의 충족여부(2).

3) 향토자료 조사 및 보존(13): 수집정책의 성문화 여부(1), 자료 수집의 주기(1), 향토자료 수집방법(4), 향토자료 정리 방법 유무(2), 외부 자문기관 유무(1), 향토자료 실/전시관, 연구소 운영여부(1).

4) 자료(5): 향토자료의 목록 유무(1), 향토자료의 수량(2), 향토자료 자체 발간실적 및 납본(2).

5) 향토자료 서비스(3): 홈페이지 유무와 자료의 전산화 정도(2), 향토자료 서비스의 종류(1).

6) 향토자료의 이용과 홍보(4): 연간 이용자 수와 주요 이용자(2), 홍보의 내용(2).

7)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6): 향토자료 수집 관리기관/단체(3), 구역 내의 수집 관리기관/단체와 관계(2), 타 지역의 수집 관리기관/단체와 교류(1).

8) 기타(2): 문화원과 향토자료관리 관계

작성된 설문의 진행은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우편 발송을 이용한 배포와 회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추가로 e-mail을 활용한 설문문항의 배포와 회수가 이루어졌다(각 문화원 담당자와의 직접통화에 의한 요구). 설문은 22개 문화원 중에서 1개원을 제외한 21개 문화원에서 이루어졌다. 설문결과는 모두 빈도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 4. 향토자료 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 4.1 향토자료 관리의 운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에서는 원장 1인, 이사 5 - 30인, 감사 2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문화원의 조직은 원장, 부원장, 이사회, 감사, 사무국장, 일반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장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임직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다른 직업과 겸임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문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인원은 사무국장과 직원이다.

다음 <표 3>은 전남지역의 지방문화원 직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설문을 받지 못한 문화원(1개)의 인력 구성은 2006년도 지방문화원 총람에 의한 자료이다. 광양문화원의 경우는 국장이 사무국장과 사업국장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도에 조사된 전국 지방문화원 직원 현황을 보면 전남지방의 평균 직원 수가 2명으로 나타났다. 2007년 9월에 실시된 본 연구조사에서는 평균 직원 수가 2.4명으로 2년에 걸쳐서 약간(0.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원은 이와 같이 소수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문화원의 역할이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역주민의 예술 활동 사업 등과 같은 사회교육 측면에서의 외부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원에서는 사무국장이 향토자료 조사 연구 및 발간 외에도 문화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예산 편성 및 집행 감독, 문화원 자체 발간지 발간, 지역사회 교육, 행사계획 및 진행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장은 현재 직책이외에 혹은 과거에 다른 직업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공무원 9명(42.8%), 향토사가 4명(19%), 문화예술인 3명(14.3%), 사업가 2명(9.5%), 학계, 언론계, 기타 각각 1명(4.8%)으로 나타났다. 문화원의 업무 성격상 향토자료 관련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관계자의 현재나 과거의 직업 경험이 꼭 향토자료 관련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 사무국장의 과거 직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과 기타가 각각 8명(38.1%)이며 전문직과 언론계 각각 2명(9.5%), 향토사가 1명(4.8%)으로 나타났다. 현 문화원장이나 사

<표 3> 문화원의 인력 구성

인력 구성	해당 수	비율(%)
국장 1명, 직원 4명	1 (곡성)	5
국장 1명, 직원 3명	1 (나주)	5
국장 1명, 직원 2명	3 (목포, 보성, 영암)	13
국장 1명, 직원 1명	16 <sup>1)</sup>	72
국장 2명, 직원 1명	1 (광양)	5
계	22	100

1) 국장 1인, 직원 1인의 문화원으로는 담양,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순천, 여수,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영광이다.

무국장 중 향토자료 관련 업무경험이나 실적이 있는가에서는 있다 12개원(57%), 없다 9개원(43%)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토자료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문화원을 살펴보면, 신안 문화원은 역사학 전공자로 향토사료 발굴 및 고문헌 조사 등에 참여한 적이 많고 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 지방자료 조사에 참여했으며 전라남도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영광문화원은 대학에서 민속학을 연구하고 근무 중에 직접 면사 자료 수집 정리를 했으며, 완도 문화원은 향토 사료집 및 완도 옛 지명, 완도 설화집, 향토사 교육을 수회 실시하고 책자를 발간했다.

향토자료에 대한 전담자의 유무에 대한 설문에는 전담자가 있는 경우 4개원(19%), 여러 업무와 병행한다 17개원(81%)으로 나타났다. 향토자료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의 기회에서는 기회가 있다 8개원(38%), 없다 13개원(62%)으로 나타났다.

향토자료 수집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 증진을 위해 전문교육 훈련체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2개원(57%), 그렇다 9개원(43%)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으나 교육의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향토자료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10%이하 11개원(52.4%), 10~20%이하와 20~30%이하 각각 4개원(19%), 40%와 50% 각각 1개원(4.8%)으로 나타나 문화원마다 향토자료 관련 예산의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간 향토자료 관리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 혹은 다른 외부 기관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은 적

이 있는 문화원은 7개원(33%), 없는 문화원은 14개원(67%)이었다.

조사대상의 전체 86%인 18개 문화원이 향토자료의 조사, 연구, 수집 및 보급이 재원의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원 모두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문화원에서 타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4.2 향토자료 수집과 관리

향토자료 수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기관의 설립목적이나 규모 등 기관의 상황에 맞는 수집정책이다. 그러나 문화원에서 성문화된 수집정책은 조사대상 기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아직 수집의 양이 많지 않고 자료 수집의 목적이 대부분 책자 발간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히 수집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향토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는지, 어떤 경우에 수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문화원이 수시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이는 각 군지 발간이나 읍·면 단위 면사(面史) 자료 조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설 향토 문화연구소가 있는 무안문화원은 소장 및 연구사들이 정기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다. 완도 문화원의 경우는 각 읍면을 순회하여 자료를 발굴하고 구전되어 오는 자료를 채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관내 향토 사료조사위원들이 정기모임을 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향토자료 조사연구사업 실적 유무에 대해서는 문화원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원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성문화원에서는 보성문화유산 총람발간, 보성의 서사문학 발간 등을 하고 있으며 신안문화원에서는 유암총서, 운곡잡저, 신안수산지, 신안 실록 등의 국역화 사업을 하고 있다. 순천문화원에서는 강남악부 국역 출간, 순천옛시역해, 유당윤중균시집 출간을 하고 여수 문화원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고문서에 나타난 우리지역 사료집이 있고 함평 문화원에서는 함평의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간행하고 있다(표 4 참조).

이 밖에도 각 지역의 시·군사나 향토지, 땅이름에 관련한 책자나 전설집, 인물집, 혹은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 비변사 등록 등에 나타나는 해당 지역의 관련 자료를 국역하는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향토자료 수집은 주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입을 한다가 3개원(14%)이었고 18개원(86%)이 자체제작이었다. 또한 문화원에서 기증을 모두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16개원이 기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을 받는 문화원 중에서는 두 곳만이 자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증을 받고 있으며 그 중 한 곳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 특별히 문서화된 평가기준은 없다. 나머지 한 곳은 평가 시 자체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학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곳 모두 기증을 받지만 기증자가 없어 아직 자료를

평가할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화원이 기증에 대한 평가나 선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토자료 업무에 대한 외부의 자문기관 존재에 대해서는 있다 9개원(43%), 없다 12개원(57%)으로 자문기관이 없는 기관은 모두 자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자문기관이 있는 문화원의 경우는 지역 대학인 목포대의 도서문화연구소, 순천대학의 사학과나 건축공학과, 전남대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이 아닌 자체 부설 연구소나 자료조사 연구위원을 위촉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사료목록을 참조한다거나 사적가치 평가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조사위원협의회 광주전남지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

향토자료 관리에 필요한 향토자료실, 전서관, 향토사 연구소 등의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11개 문화원이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고 8개 문화원은 2개, 나머지 문화원 3곳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 설문을 받지 못한 문화원(1개)은 2006년 지방문화원 총람의 시설자료를 참조했다.

지역의 전통소리, 향토축제, 문화유적 등 전통 향토문화 자료를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 CD 등 시청각매체로 활용하여 기록·보존 관리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문화원의 약 67%(%)가 하고 있지 않아 자료의 매체화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주 문화원에서는 나

〈표 4〉 문화원의 사업 실적

문화원	구체적 사업
보성	보성문화유산 총람발간, 보성의 서사 문학 발간 등
신안	유암총서, 운곡잡저, 신안수산지, 신안 실록 등 국역화 등
순천	강남악부 국역 출간, 순천옛시역해, 유당윤중균시집 출간 등
여수	조선왕조실록과 고문서에 나타난 우리 지역 사료집 등
함평	함평의 고전문학, 현대문학 간행 등

주 토속 민요나 들에서 농사를 지으며 불렀던 소리들을 CD로 매체화해 웹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안문화원에서는 신안 민요 보존을 위해 “신안 섬사람들의 삶의 노래”인 민요 CD를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전통소리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맥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전통소리의 시청각 매체화는 매우 시급하다.

타 문화원과 비교 시 특색 있는 혹은 자랑할 만한 향토자료나 수집방법 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18개 문화원이 모두 없다고 했으며, 있다고 답한 3개 문화원은 대부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향토자료 관련 사업이나 결과물들을 말하고 있었다.

수집이나 발간된 향토자료의 정리에 대해서는 있다 9개원(43%), 없다 12개원(57%)이었다. 그러나 있다고 대답한 문화원의 구체적 답변 요구에서는 그냥 자료실이나 서고에 책자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별히 성문화된 분류기준이 따로 없고 지역별, 자료 성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문화원도 있었다. 따라서 자료의 양이 많지 않아 정리기술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순천 문화원에서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분류·정리가 현재 진행 중이고, 곡성 문화원에서는 도서관 DB시스템을 사용해 자료를 전산화하고 있다. 또한 그냥 서고에 책자로 보관하는 문화원은 정리에 대한 기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향토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으로는 인력, 자원, 전문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향토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증자가 없어 수집이 어렵고 전문 향토자료 수집에

대한 기술이 부족해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예산확보가 힘들고 당장 시급한 문화원 업무 추진으로 향토자료 수집에 대한 시간이 없고, 향토전문가가 부족하고 섬이 많은 지역의 문화원은 자료 수집활동에 제약이 따르며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토자료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수집이 어려우며, 각 마을의 제보자들이 나이가 많아 자료 수집하기가 힘들고 만나서 녹취 또는 구술로 정리해야 하는데 만나기가 어렵다고 한다.

어떤 문화원(1개)에서는 문화원의 인지도가 낮아 자료 수집 중 신분 보장에 대한 민심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자료 소장자의 비협조와 문화재 감정을 하는 TV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료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향토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자료실 전용공간의 부족, 전담인력의 부족, 사무국장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 그 결과 많은 시간의 제약, 분류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향토자료의 가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향토자료에 대한 목록의 유무는 14개원(67%)이 있다, 7개원(33%)이 없다고 하였다. 목록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수량 파악이 쉽게 될 수 있다. 목록이 있는 문화원 중에서도 몇몇 문화원은 일부만 정리되었거나 아직 정리가 진행중이어서 수량파악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향토자료 관련 도서의 경우는 적게는 200~300권에서 많게는 4,000~5,000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도 있다.

문화원의 박물관적 자료(예: 병풍, 미술품 등)의 소장여부에 대해 2개 문화원을 제외한 19개 문화원이 없다고 하였다. 2개 문화원은 예술품

8점과 도기 및 미술품 100여점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화원에서 박물관적 자료는 거의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향토자료의 납본 여부에 대해서는 14개원(67%)이 타 기관으로부터 납본을 받고 있었고 7개원(33%)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본은 전국 문화원과 전국 향토사 협의회나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받고 있었다.

### 4.3 향토자료 이용과 관리

자료는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발휘된다. 즉, 필요한 향토자료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해 줄 때 문화원의 향토자료에 대한 가치인식과 홍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기관이든지 자료에 대한 이용과 정보서비스 부분은 그 기관의 존재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원의 향토자료 이용에서 연간 이용자 수는 10명 이내가 1개원(4.8%), 10~50명이 4개원(19%), 50~100명이 8개원(38.1%), 100~200명이 5개원(23.8%), 200~300명이 1개원(4.8%),

500~1000명이 2개원(9.5%)이었다. 주요 이용자는 전문연구자가 17개원(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과 대학생이 각각 10개원(18%)이고 교육자가 6개원(11%), 직장인이 5개원(9%), 청소년이 3개원(5%), 주부가 2개원(4%), 기자와 후손이 각각 1개원(2%)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용목적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자나 향토사학자들이 연구 자료를 찾기 위해서, 혹은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향토의 역사 문화유적 자료나 향토의 인물자료를 찾기 위해서, 지역문화 홍보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이 뿌리를 찾기 위해 족보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향토자료를 찾는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문화원에서 열람과 복사,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몇몇 기관은 원외 대출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pdf파일, 전화상담, e-mail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1개원을 제외한 21개원이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향토자료

〈표 5〉 향토자료 주요 이용자 (\* 복수응답)

이용자	해당 수	비율(%)
전문 연구자	17	31
노인	10	18
대 학생	10	18
교육자	6	11
직장인	5	9
청소년	3	5
주부	2	4
기자	1	2
후손	1	2
계	55	100

관련 정보서비스 종류는 전체 21개원 중 지역 명칭에 대한 유래 8개원(12.5%), 지역의 역사 14개원(21.9%), 인물 14개원(21.9%), 지역의 옛 사진 3개원(4.7%), 지역 문화재 소개 10개원(15.6%), 전통 소리 제공 1개원(1.5%), 전설, 설화, 당제와 같은 민속자료는 14개원(21.9%)이었다.

웹 상의 정보서비스 중 전통소리는 나주 문화원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나주 토속 민요와 나주의 여러 지역에서 각각 불리고 있는 들노래들을 채록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목포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에서는 '사진으로 보는 목포 100년'을 통해 목포의 옛 모습을 사진 자료로 제공하고 있고, 순천 문화원에서는 순천시의 근대 사진자료 수집을 통해 사라져간 옛 모습을 사진 전시회나 근대 역사 교육 자료집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문화원에 소장된 향토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해서는 6개원(29%)이 하고 있으며 15개원(71%)은 하고 있지 않다. DB를 구축하고 있는 문화원 중에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응답이 3개원이고 두 개원은 각각 5%, 10% 라고 하였으며 곡성문화원은 100% 진행이 되었다고 하였다. 2006년 지방문화원 총람 자료에 의하면 곡성 문화원은 2억 8천여만원의 예산과 사무국장외 직원의 수가 4명인 문화원으로 타문화원에 비해 재정(예산 중 지방비의 액수가 1억원 미만)과 인력부분에서 훨씬 나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향토자료 DB화가 가능하였다.

향토자료 이용에 대한 홍보는 12개원(57%)이 실시하고 있으며 9개원(43%)이 실시하고 있지 않다. 홍보를 하는 12개원 중 5개원이 홍보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2개원은 학교와 연계하여 향토자료 이용을 홍보하고 나머지 5개원은 홈페이지 활용과 발간본을 배포하거나 신문광고나 회원관리를 통해 향토자료를 홍보하고 있다. 향토자료 홍보 방법으로는 9개원이 관할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해당 지역문화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12개원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4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해당 문화원의 행정구역 내에 향토자료 수집 관리기관이나 단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청 12개원(41.4%), 공공도서관 4개원(13.8%), 향토사가 10개원(34.5%), 기타 3개원(10.3%)으로 나타났으며, 1개원은 향토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다고 하였다. 기타로는 군향토문화연구회, 순천문화원의 경우는 시·군청, 공공도서관, 향토사가, 동부 지역사회 연구소와 그린순천 21에서 향토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향토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이 4개원이었으며 전남 소재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시 소재 공공도서관 (목포공공도서관 제외)에서만 향토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군 소재 공공도서관에서는 향토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표 6 참조).

또한 앞의 문항과 관련해 수집 관리 기관/단체나 개인 등이 어떠한 향토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3개원(62%)이 알고 있다, 8개원(38%)이 모른다고 나타났다. 타 수집 관리기관이나 개인 등과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연계가 있는지의 여부에서는 있다 16개원

〈표 6〉 향토자료 수집 관리 타 기관/단체 (\* 복수 응답)

타 수집 관리 기관	해당 수	비율(%)
시·군청	12	41.4
공공도서관	4	13.8
향토사가	10	34.5
기타	3	10.3
계	29	100.0

(76%), 없다 5개원(24%)으로 나타났다.

문화원의 해당 구역 내의 수집 관리기관/단체 등과 협력 수서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개원(38%)이 있다고 하였으며 13개원(62%)이 없다고 하였다. 있다고 한 문화원은 협력을 하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안은 현재 없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성문화된 협력 수서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원은 서로 협력관계에는 있으나 구체적 수서안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 지역의 향토자료 수집 관리기관/단체와 교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12개원(57%)이 있고 9개원(43%)은 없다. 구체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 문화원과의 연계를 통해 발간도서를 주고받는다거나 자매결연 단체 등과의 자료 협조요구, 해당 문화원의 향토문화와 연결되는 타 지역으로의 역사탐방 등을 하거나 대학 연구소 등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화원이 소속된 지역에서 해당 문화원을 포함해 향토자료 관리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1개원 중 11개원은 무응답, 응답을 한 10개원 중 3개원은 없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7개원 중에서 2개원은 군청, 군 관할 문화관련 사업소가 1개원, 3개원은 해당 문화원이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이 문화원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1개원은 무형문화재를 보존하는 단체가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진민(2003년)의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국 공공도서관 중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향토/지역자료 관리의 적합한 기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응답기관 53개관(82.8%) 중 공공도서관이 48개관(36.4%), 문화원이 30개관(22.7%), 행정관청이 27개관(20.5%), 박물관이 24개관(18.2%)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자료의 수집과 정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서가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원은 문화원의 성격상 향토/지역문화를 소개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은 공공도서관보다 예산이 더 많아 고가의 향토자료 구입이 쉬울 것이기 때문에, 박물관은 자료의 성격상 소장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향토자료를 어디에서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토자료의 분산된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를 통해 인적, 재정적으로 이중적인 부담을 줄이기 때문이다.



#### 4.5 문화원과 향토자료관리 관계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의 지방문화원 사업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3가지를 기술하라는 물음에 응답기관 21개원 모두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을 선택했고, 18개원이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10개원이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6개원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와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개원이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3개원이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원 관계자들은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이 문화원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에서 문화원이 갖는 강점이나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 강점으로는 그 지역의 향토사 및 전통문화 사상에 관한 자료가 가장 많이 확보되어 있어 지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용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문제점으로는 재정, 인력, 공간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해야 할 많은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꼭 필요한 기초 공간도 확보되지 않아 향토자료의 전시·열람에 어려움이 많아 공간과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고 연구기관들끼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이 부족하며,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열악함으로 인해 향토자료 수집 및 연구에 대한 여력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운영자가 바뀌더라도 향토자료 관리는 계속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 4.6 향토자료 관리의 문제

문화원에서 향토자료를 관리하는데 인력적인 면이 매우 열악하다. 대부분 사무국장 1인과 직원 1인의 조직 구성으로 주요 업무는 사무국장에 의해 수행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향토자료가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은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해결 가능하다.

문화원의 발간사업은 지명 유래집, 지역 문화지, 지역사료총람, 마을사 등을 담은 지역 향토사, 지역문화지 발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전설과 역사 등을 다양한 문화콘텐츠화 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교육과 산업 등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문화원의 발간사업은 아쉽게도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민의 생활보다는 지역 권력사에 치중되어 풍부한 지역사를 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교육과 문화콘텐츠 제작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대사에 취약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 조사 발간 사업은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즉 풍부한 지역사는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담았을 때 가능하다. 단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개인적인 역사를 복원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대변되는 대다수 민중의 삶과 생각의 방식을 종래와는 다른 시각에서 찾고자하는 것이다. 또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지역 어르신들의 역사적 증언이나 삶의 흔적들을 보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향토자료 수집이나 관리가 각각의 기관의 형편에 맞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이고 공통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각 지역이나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료의 수집이 중요하면서도 제각각인 관리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료의 정리에 있어서 현장의 담당자들이 일관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토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기관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관리지원기관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적인 부분에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간 지방문화원 국고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까지 각 문화원에 향토자료 조사연구비가 500만원~680만원 지급되었다. 그 이후로는 자체 예산에서 충당하고 예산의 대부분은 지방비에 의존하여 지자체의 향토자료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비례해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 2006년 전남 지방 문화원들의 예산 중 지방비가 5,000여만 원에서 2억 8천여만 원까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물론 이 금액이 문화원의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데 쓰이지만 책정된 금액에 비례해서 향토자료의 수집 관리에도 사업이 진행되므로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 4.7 효율적인 향토자료 관리 방안

문화원에서 향토자료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원의 운영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 중 인적자원관

리, 자료관리적 측면, 중앙과 지역내의 유관기관과의 협력, 자문위원 구성 측면에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원은 인적자원 부분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이나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서도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사서에 의하면 향토자료 수집을 위해 현장에 나가도 자료가 별로 없다고 한다.<sup>2)</sup> 그러나 지역에 관련된 연구자와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자료가 널려있다고 하는데 정작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할 사람들은 무엇이 자료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은 자료관리 조직에 모두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아닌 역사학 전공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결국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자료를 찾아보니 자료조직 전공자들은 제 역할을 담당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가 있지만 알아보기 못하는 것은 결국 전문성의 부재이다. 문화원은 향토자료 수집과 정리라는 업무의 오래된 전통을 통해 그나마 다른 기관에 비해 향토자료가 구비되고 있으나 극소수의 인원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 방법에는 기존의 인력을 재교육시키는 방법과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향토자료 관리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여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다. 기존의 인력의 재교육 방법으로는 향토자료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견학하고 전문 인력에게 운영상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문위

2) 2007. 7. 12. M공공도서관 사서와 인터뷰.

원을 통하여 향토자료 수집과 관리에 대하여 도움 받을 수 있다. 또한 향토자료기관에서 인턴쉽을 통해 예비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다. 향토자료 전담업무는 문헌정보학 전공자이면서 타 전공 학사학위 이상 복수 전공자가 일임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타 전공에는 역사학, 기록관리학, 박물관학 복수 전공자들이 적합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체계가 가장 필요하며 이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문협회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와 워크숍 등에 참석하거나 향토자료 전문기관의 견학이나 연수를 통해서,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교육의 기회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향토자료 관리에 중심을 두고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을 통한 교육과정과 연구 등을 통해 향토자료 전문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다음 <표 9>는 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이진민 2003, 78).

둘째, 자료관리적인 측면이다. 문화원이 다양한 향토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실행한다.

1)구입과 자체제작 방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이나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체제작은 수집된 자료의 발간이나 복사, 필사, 탁본, 사진, 녹음 및 신문스크랩자료 등 편집적 의미를 가진 작업으로 향토자료 중 역사적 흐름을 담아야 할 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CD-ROM, 비디오테이프 형태로 제작하거나 구술사, 민요, 구전설화, 노동요 등 음성기록물은 오디오 테이프 형태로 제작하여 서비스 할

<표 7> 향토자료 관련학과 교과과정

대 학		교 과 과 정
기록관리관련 대학원	명지대	한국기록사료연구
	충남대	지방사연구, 역사자료론, 근현대자료론, 고문서연구
	한국의대	고문서세미나, 구술사방법론, 한국사자료론
	한남대	지방사연구, 한국근현대사자료론, 고문서 세미나
문헌정보학과	이화여대	고문헌관리, 서지학의 이해, 동양고전해제
	전남대	우리의 옛 책, 고문헌조사방법, 지역문화정보론
	중앙대	서지학, 고서정리법
사학과	전남대	역사사료해설, 지방사 연구법

<표 8> 향토자료 관련 기관의 교육과정

기 관	교 육 과 정
국사편찬위원회	1년의 국내 사료과정과 국외 사료과정을 개설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부설 교육기관인 한국학 대학원 역사계열의 한국사 사료전산화, 고문서분류방법, 고문헌현장조사, 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개발기술 등
한국국학진흥원	한문과 초서로 된 자료를 해독하는 전문 인력 양성과정

〈표 9〉 향토자료 전문 인력의 요구능력

업무 구분	요구되는 능력
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자료 개념과 종류 및 전문용어의 이해</li> <li>• 국내외 향토 관련 간행물에 대한 정보</li> <li>• 향토서지학자나 연구가 등 전문가와의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기술</li> <li>• 자료의 자체 제작 기술 능력 습득</li> <li>• 역사, 기록 분야 지식 습득</li> </ul>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의 정리 방법</li> <li>• 고서·고문헌 정리</li> <li>• 단명자료의 정리</li> <li>• 비도서 자료의 정리</li> </ul>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자료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li> <li>• 향토자료 관리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해</li> <li>• 견학 프로그램, 세미나 개최 등에 대한 이해 및 운영</li> </ul>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도서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이용방법의 지식</li> <li>• 자료의 복원·보존·관리에 대한 지식</li> </ul>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민속 축제 등을 담은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 축제의 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에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문화원에서는 지역의 자료를 수집해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자료의 시청각 매체화는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

2) 문화원에서는 향토자료의 소장자로부터 자발적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증자 유치 방안과 기증자 관리방안을 제도적으로 성문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우선 가치 있는 향토자료를 소장한 관계자를 파악하여 소장자와 소장자료에 대한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2)기증자와 기증 자료에 대한 추후 관리 방법에는 기증자들의 명단과 기증 자료에 대한 기록을 장서연감에 등록한다. (3)수집기관의 회보나 소식지를 기증자들에게 발송하여 향토자료의 관리 발전과정을 알리거나 기관의 행사에 기증자들을 초청한다.

3)향토자료의 정리에 대한 일관된 규정을 마

련해야한다. 즉, 수집된 자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자료 조직체계(향토자료 조직을 위한 분류나 목록 등의 기본 방침)가 일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1)상호대차나 향후 전국적인 향토자료 목록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표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2)팝플렛, 회보 등 단명자료 및 사진자료, 지도자료 등 기존의 다양한 자료들을 목록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자료를 발굴해 온 소재처와 아직 수집하지 못했으나 지역과 관계된 자료에 대해서는 소재처 목록을 구분하여 작성해 두어야 한다. (4)자료의 성격과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제별 카테고리를 작성한다.

4) 웹을 통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토자료는 특성상 오디오, 비디오, 형태의 자료가 많기 때문에 웹을 통한 정보제공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누구나 향토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은 그 개발과정이다.

(1) 기획단계에서는 사이트 개발 기간과 예산 확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다양한 향토자료 중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분석단계에서는 향토자료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구축하기 위해서 고서와 회귀본 등 자료의 전반적인 가치와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여 웹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웹 서비스 계획단계에서 자료 보존문제 해결, 보다 많은 이용자의 동시 자료접근, 홈페이지를 통한 향토자료 홍보 효과 등 장점에 대하여 미리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용자 그룹의 분석은 지역 내·외 이용자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외인을 중심으로 원거리 자료제공이라는 의미에서는 자료제공 방안과 초·중·고등학생과 교사를 중심으로는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이용자 그룹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분석단계에서 향토자료 중 웹서비스 할 주제와 관련되어 수집된 데이터들이 정확하고 유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설계단계에서는 특히 다양한 향토자료 주제범위를 인식하여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일관성 있게 콘텐츠를 배치하여 웹페이지를 구성해야 한다. (4) 구현단계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추후 확장 가능한 자료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전체 사이트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구현되어야 한다. (5) 홍보단계에서는 웹 기획단계에서부터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으로 관심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 외 이용자 그룹을 고려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상호보완적인 홍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기관 사이트를 링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중앙과 지역내의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성이다. 조사결과 현재 국내 여러 기관에서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중복 수집으로 인한 경쟁과 예산낭비, 인적자원의 업무의 중복에서 나오는 조직과 업무 능률의 저하, 향토자료 구성의 불균형 초래(일정한 영역만 집중), 이용의 비효율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토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끼리의 협의회를 결성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기관간의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서로의 수집 자료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해 문제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성과 협력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향토자료 관리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향토 자료관리의 지역의 거점영역으로써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2)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간의 수집 정책들을 비교 검토하고 각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공유한다.

3) 협력은 자료의 부분에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향토자료 전문가들 간의 인적 교류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향토자료 수집 관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조사에서도 향토자료의 관리가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화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넷째, 자문위원회의 구성이다. 자문위원은 지역원로, 향토사가, 향토서지학자, 향토연구가, 향토자료 기증자 등 지역의 발전과 함께 해온

인물이나 지역의 연구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자문위원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다양하고 가치 있는 향토자료를 수집, 개발할 수 있으며, 향토자료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향토자료 업무에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잇점이다. 1)향토자료 구입 목록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2) 사진자료, 지도자료, 고서 중 특히 전문가의 지식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의 가치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수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지역 내 유적지나 인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수집에 대한 기본 지침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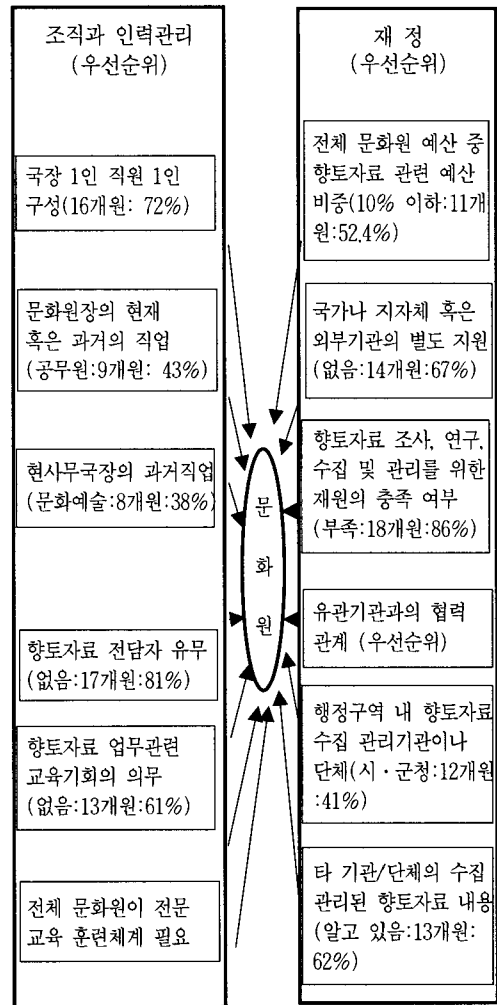
###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지방문화원에서 향토자료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남지역 22개 시·군 문화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향토자료의 가치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향토자료 관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관리 측면, 재정관리 측면, 자료관리 측면, 이용과 서비스,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의 측면에서 조사·연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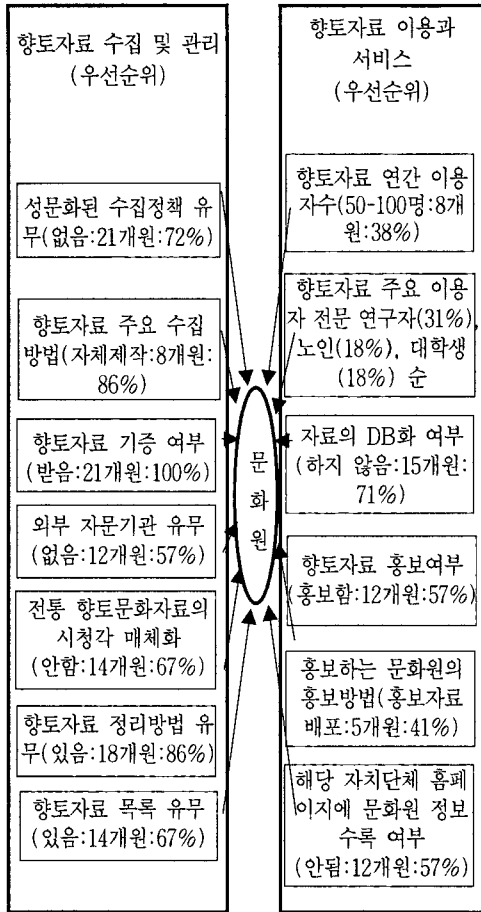
향토자료 관리에 대한 문화원의 조직과 인력관리, 재정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각 영역의 우선순위는 다음 <그림 1>,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연구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원의 역할 측면에서 효율적인 향토

자료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인적자원에 체계적인 전문 교육의 기회를 주어 전문화 시키는 방법, 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의 기증유치 증대 방법, 자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개발, 중앙과 지역내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자료의 공유와 인적교류를 통해 서로간의 중복을 피하고 기관간의 상승작용,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전문성의 증대 등이다.



<그림 1> 조직과 인력관리 및 재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그림 2〉 향토자료 수집 및 관리와 향토자료이용과 서비스

향토자료는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역사적 전통성을 계승·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조사과정을 통해 향토자료 관리 기관들은 향토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토자료는 낯설고 어렵다는 생각의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선조와 부모님, 그리고 내가 살아온 역사·문화적 발자취라는 것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향토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유와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 연구가 전남지역과 시·군 문화원이라는 한정된 지역과 기관의 자료조사이지만 향후 향토자료 연구를 위한 기초 정보자료로서의 토대가 되고 폭넓고 깊이 있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향토자료가 학교 교육과 연계가 되어 지역의 정체성이나 우수성 등의 함양을 위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강순애. 2006. 한국의 지방사 디지털 아카 이브의 구축과 통합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4: 5-31.
- 강진갑. 2000. 21세기 정보화 시대 인터넷 郷土誌 편찬에 대하여. 『향토사연구』, 12: 75-81.
- 강원중. 『지방문화원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국사편찬위원회. 2003. 현장조사와 정리를 위한 근현대 지방사료 창 열기. 『한국사연구지원 보고 자료집』, 7.
- 김미향. 2004. 『지방역사기록물 수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김병인. 2002. 지방사 연구에 있어서 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 : 기념비를 통한 구림마을의 장기사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30: 181-188.

송정숙. 2004. 지방 자료관리 현황과 전망. 『기록관리학회학술발표논문집』, 추계.

양상숙. 1997. 고문서, 고서, 향토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대한 지역도서관의 역할 : 제주지역 향토자료의 수집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협회 제35회 전국도서관 대회 주제발표 논문집』.

염미경. 2002. 근현대 지방사자료의 정리현황과 활용방향 : 광주·전남지방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31: 97-120.

옥승현. 2006. 『문화원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여수대학교 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유재춘. 2002. 지역사 자료의 수집, 정리 실태와 개선방안 :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 문화사연구』, 7.

이남희. 2000. 향토사자료의 전산화 과정과 그 효용성. 『향토사연구』, 12: 57-68.

이덕일. 2006. 한국사의 생산, 유통, 소비, 그 현황과 과제. 『역사와 경계』, 59: 353-366.

이진민. 2003.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이해준. 2001. 지역학의 범주와 향후 연구 『안동학연구』, 3: 361-379.

이현식. 2002.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인천학연구』, 1-16.

장대원. 1976. 도서관자료의 수집보존. 『도서관』, 31(2).

장윤희. 2004. 『대학기록물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 한신대학교 역사기록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04.

전명혁. 2005. 기록과 역사 : 역사서술에서 기록물과 사료, 역사이론의 관계. 『기록학연구』, 11: 122-142.

정주연. 1998. 『향토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정현태. 1991.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개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지수걸. 2002. 지방자치와 지방기록관리. 『한국기록관리학회』, 제2회 기록학심포지움자료집: 27-36.

최희진. 2005. 『지방역사기록물 수집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하용태. 1964. 향토자료의 수집정리 소고. 『도서관문화』, 5(10): 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0. 『2000년도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연구』.

(웹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http://history.go.kr>>

인천학 연구원: <<http://www.isi.or.kr>>

전국문화원연합회: <<http://www.kccf.or.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kcti.re.kr>>

한국학 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

호남문화 연구소: <<http://homun.or.kr>>

강진문화원: <<http://gangjin.kccf.or.kr>> 의